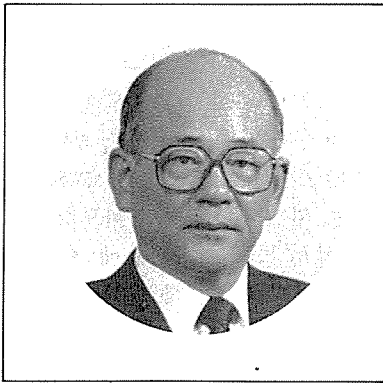


## 과거의 다소 被動的인 입장을

“科學技術人들은  
 歷史發展 구심체란  
 소명감 가져야”



權 舜 赫 科總會長

오늘 「第23回 科學의 날」을 맞이하여 科學技術處 鄭根謨 長官님을 비롯한 科學技術界 元老, 先輩 그리고 來賓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搖籃인 이곳 大德研究團地에서 기념식을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지난 1968년에 科學技術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科學의 날」을 主唱한 이래 科學의 날은 5회까지 科總이, 6회부터 지난 20회까지는 政府主導로 科學技術處가 기념행사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21회부터는 科總이 다시 主管하게 되어 한층 감회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光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의 産業과 科學技術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고, 經濟發展과 政治, 社會, 文化등 각 분야에 걸쳐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할수 있게 된것은 여기 모이신 科學技術人 모두의 숭고한 봉사정신의 발로와 노력의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을 맞이하면서 元老·先輩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政府當局이 그동안 科學技術政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科學技術振興의 당위성을 온 國民에게 심어주고 技術開發投資擴大와 高級頭腦養成 그리고 각종 産業기술혁신을 위한 制度改善등을 착실하게 뒷받침해온 점에 대하여도 이자리를 빌어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尊敬하는 百萬科學技術人 여러분!

서기 200년대가 불과 10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世紀의 바뀜이라는 大變換期를 앞두고 우리 國民은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解放이후 온갖 인내와 각고를 겪으면서 그동안 이룩해 놓은 20세기 후반의 經濟發展과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民主化 過程을 바탕으로,

## 벗어나서 科學技術의 주체로서의 能動的 위치를 되찾아야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經濟, 社會, 文化 각 부문에서 先進福祉社會로 진입하고자 하는 염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念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科學技術의 도약만이 중요한 관건이 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모든 國民이 科學技術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科學的인 사고와 행동을 갖게 될 때 科學技術發展의 기반이 튼튼해질 뿐 아니라 합리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되어 모든 분야에서의 여러가지 모순들이 해결되면서 우리 사회가 명실상부하게 선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科學技術發展을 위한 제반여건은 날로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先進國은 선진국대로 보호주의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製品開發과 관련된 기술이 통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저작권 등 知的所有權 保護의 강화로 인하여, 基礎知識마저 습득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결국 앞으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기술개발과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家的次元에서의 최우선적인 科學技術施策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科學技術處에서는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基礎科學分野 研究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技術開發의 基底가 되는 基礎研究를 담당하여야 할 大學을 중심으로 참신한 研究開發風土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도 基礎研究와 人力養成의 중추기관인 大學과 學會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와 지원을 유도하여 大學의 참다운 研究雰圍氣를 조성하는 동시에

學·研·産 協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政府와 힘을 합하여 先導的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科學技術人 여러분께서도 科學技術 위주의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國家發展의 초석이 되어야하며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科學技術人들은 과거의 다소 被動的인 입장을 벗어나서 科學技術의 주체로서의 능동적 위치를 되찾음으로써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현실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政策을 모색하여 政府에 건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함께 하는 새로운 자세를 정립할 때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살길은 오직 技術革新을 통한 經濟發展이라는 目標아래 앞으로 기술개발투자의 확대와 基礎科學 육성은 물론 學會 學術活動을 더욱 진작시키고 연구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百萬 科學技術人들 스스로가 歷史發展의 구심체라는 소명을 갖고 제23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면서 國家와 民族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겸허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國民의 의식속에 創造와 能率 그리고 合理의 精神이 심어지고 科學者와 技術者 그리고 技能人이 함께 대우받는 소망스런 풍토가 이룩될 수 있도록 政府當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科學技術의 오늘이 있기까지 大學과 研究開發의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고를 다해오신 元老·先輩 科學技術人을 비롯한 科學技術處, 言論關係者 여러분과 오늘 「大韓民國科學技術賞」과 「有功褒賞」을 받으시는 受賞者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